

## 빨래가 말을 해?

조선시대에 장안에서는 밤이면 도둑이나 화재를 막기 위해 사람의 통행을 금하고 순찰을 도는 순라군이 있었다.

어느 날 밤에 정수동은 친구 집에서 늦도록 술을 마시다가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멀리서 순라군이 오는 것을 보고 급히 골목으로 도망을 쳤다.

순라군도 수상한 사람을 발견하고는

“누구냐? 거기 서라.”

소리치면서 맹렬히 쫓아오는데 정수동은 취중에도 그들에게 붙잡히지 않으려고 이 골목 저 골목으로 달음박질을 하다가 그만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게 되자 그는 얼른 옆의 토담 위로 올라가 었드렸다. 쫓아오던 순라군도 골목이 막혀 어리둥절하다가 토담위에 허영게 었은 것을 발견했다.

“토담 위에 었은 것이 뭐냐?”

“빨래예요”

“무슨 빨래가 말을 다 할 줄 아느냐?”

“급해서 입은 채로 빨았어요.”

“어허! 정 선달 나리, 어디서 또 한잔 하셨군요.”

순라군은 벌써 장안에서 유명한 정수동을 알아보고 저희들끼리 킁킁대면서 그냥 가버렸다.